

# 경제 동향

## ■ 요약

■ 경기 생산/출하 · 재고 순환/소비

■ 고용 취업자/실업률/물가

■ 부동산 건설경기/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제조업생산 지난해 10월 대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월중 서울의 제조업생산은 증공업(-19.8%)과 경공업(-7.8%) 부문 모두 지난해 10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 11.0% 감소함</li> </ul> </li> <li>○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난해 10월 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월중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백화점 판매액은 3.1% 증가하고 대형마트의 판매액은 7.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4.9% 증가함</li> </ul> </li> </ul>
<p>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취업자 지난해 11월 대비 소폭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중 서울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대비 0.2% 감소한 4,948천명으로 전국의 취업자 수가 증가(1.1%)한 반면에 서울의 취업자 수는 감소함</li> <li>- 11월중 서울의 실업률은 지난해 11월과 동일한 4.6%로, 서울이 전국보다 2개월 연속 1.0%p를 상회함</li> </ul> </li> <li>○ 서울의 소비자 물가 지난 10월 대비 소폭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중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광열·수도(-2.9%), 식료품(-11.6%)을 중심으로 지난 10월 대비 0.5% 하락하여 하락세가 지속됨</li> </ul> </li> </ul>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지난해 10월 대비 감소·서울의 건설수주액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월중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518천㎡로 지난해 10월 대비 소폭(-2.3%)감소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주거용 중 아파트 허가면적(-74.4%)의 감소에 기인함</li> <li>- 10월중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2,736억 원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74.5%(전국: 46.8%) 증가함</li> </ul> </li> <li>○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199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중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10월 대비 4.8% 상승하여 199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특히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6.2%)이 높게 나타남</li> <li>- 11월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재개발과 뉴타운 계획에 따른 이주 수요의 증가와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가격 동반상승의 영향으로 지난 10월 대비 1.6% 상승함</li> </ul> </li> </ul>
<p>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신설법인 수 증가, 부도업체 보험, 어음부도율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중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지난 10월 대비 28.5%(333개) 증가한 1,729개임</li> <li>- 11월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지난 10월 보다 0.01%p 하락하였고,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지난 10월 보다 2개 증가한 74개로, 2006년 상반기 평균(76개)과 비슷한 수준임</li> </ul> </li> <li>○ 서울의 수출, 수입 모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중 서울의 수출은 지난해 11월 대비 15.0% 증가한 2,210백만 불, 수입은 13.5% 증가한 5,268백만 불을 기록함</li> </ul> </li> <li>○ 장·단기 금리차 큰 폭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중 장·단기 금리차는, 국고채(4.82%)가 지난 9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콜금리는 4.49%로 유지됨에 따라, 11월말 현재 0.33%p로 크게 확대됨</li> </ul> </li> <li>○ KOSPI 지수 지속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중 KOSPI 지수는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해외증시 상승, 북핵리스크 감소, IT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지속 상승하여 11.30일 지난 10월 대비 67.7p(4.93%) 상승한 1,432.21p로 마감함</li> </ul> </li> </ul>

## | 생 · 산 |

##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감소세 확대

## ■ 전국 산업생산 견실한 신장세

- 2006년 10월중 전국의 산업생산은 추석명절 이동과 조업일수 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해 10월 대비 4.6% 증가함
- 업종별로는 지난해 대비 영상음향통신, 섬유제품, 음료식품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비금속광물, 기타전기기계, 의복 및 모피제품 등에서 증가함

## ■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감소세 확대

- 2006년 10월중 서울의 제조업생산은 86.3(2000=100)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11.0% 감소함
- 업종별로 보면 가죽·가방 및 신발 등에서 증가한 반면 의복 및 모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인쇄출판, 고무 및 플라스틱, 기타기계 및 장비 등에서 감소함

## ■ 서울 중공업부문 산업생산 감소세 확대

- 산업부문별로 중공업부문은 지난해 10월 대비 19.8% 감소하여 감소세가 확대됨
- 세부업종별로 화합물 및 화학제품(-79.0%)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제1차금속(-46.7%), 고무 및 플라스틱(-34.5%) 등 대부분 중공업부문의 산업생산이 감소함
- 경공업부문은 지난해 10월 대비 7.8% 감소하여 지난 8월 이후의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됨
- 세부업종별로 가죽·가방 및 신발(30.0%)만이 증가하였고 음료식품(-21.3%), 종이제품(-11.2%), 의복 및 모피(-7.3%) 등이 감소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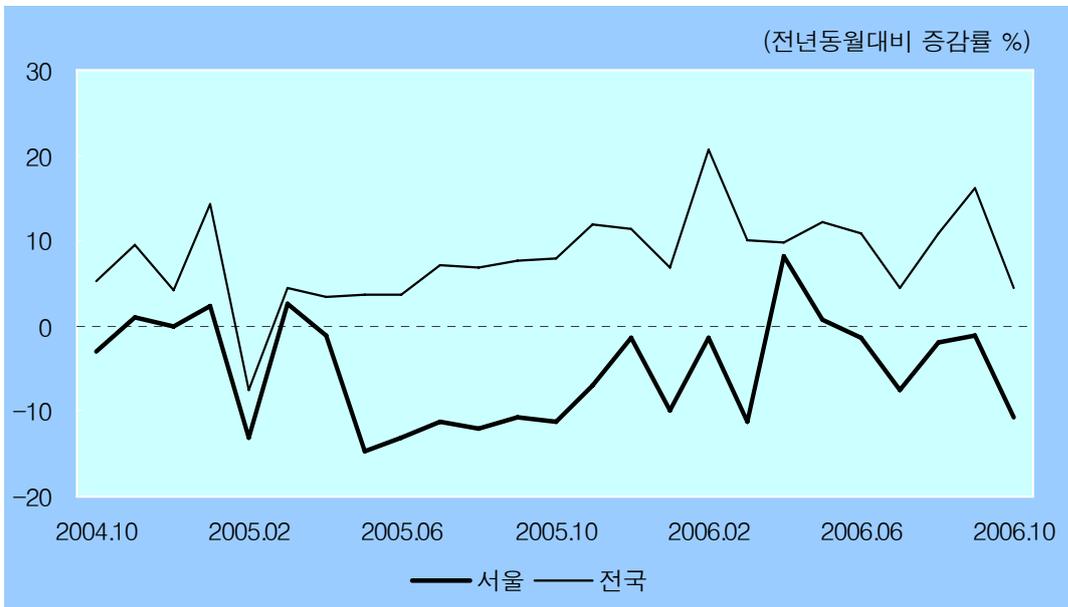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10월	6월	7월	8월	9월p	10월p	
전 년 동 월 비	전국	8.0 (1.9)	10.9 (1.2)	4.5 (-3.7)	10.9 (3.7)	16.5 (3.1)	4.6 (-2.6)
	서울 (제조업)	-11.6 (5.8)	-1.6 (-3.0)	-7.9 (-5.4)	-2.5 (2.0)	-1.9 (8.8)	-11.0 (-4.6)
	중공업	-34.8 (-4.0)	-9.0 (3.8)	-24.2 (-17.6)	-18.2 (3.8)	-15.9 (2.4)	-19.8 (-8.1)
	경공업	1.5 (9.8)	2.0 (-5.7)	-0.4 (-0.4)	4.7 (1.3)	4.0 (11.1)	-7.8 (-3.5)

주: (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Box> 2005년 서울특별시 지역내총생산(GRDP) 및 지출

▶ 경제규모 및 성장

- 2005년 서울특별시 명목총생산은 186조 419억원으로, 전국 815조 2,893억원의 22.8%를 차지함

<표> 서울과 전국의 명목총생산 현황

(단위: 10억원, %)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인구구성비 (2005년)
	2004년	2005년p (구성비)		2004년	2005년p (증감률)		
서울	179,402.6	186,041.9	(22.8)	156,224.2	159,587.9	(2.2)	20.8
전국	786,362.4	815,289.3	(100.0)	702,088.4	729,240.6	(3.9)	100.0

- 명목 및 실질 시내총생산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표> 서울시 연도별 총생산규모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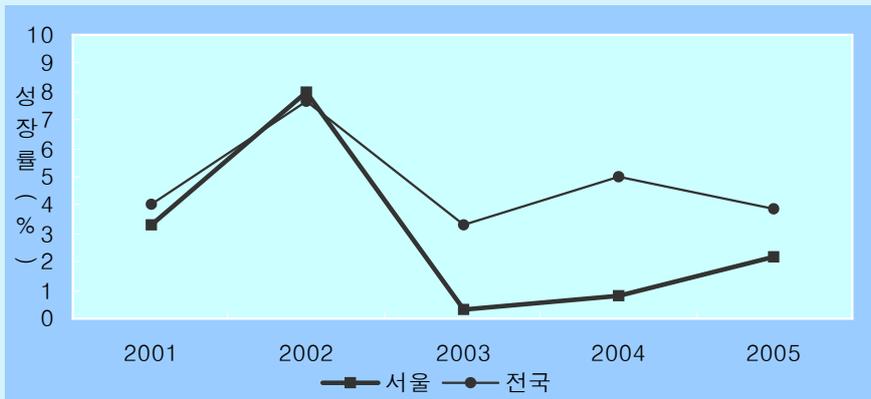
	2001	2002	2003	2004	2005p
명목총생산	149,887.0	168,143.4	175,502.4	179,402.6	186,041.9
실질총생산	143,087.8	154,503.1	154,943.9	156,224.2	159,587.9

- 실질총생산은 지난해에 대비 2.2% 성장하였는데, 이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동산사업서비스업(3.5%), 금융보험업(5.3%) 등이 증가한데 기인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건설업(-6.9%), 제조업(-7.7%) 등은 감소함

<표> 서울시 경제활동별 성장률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p
경제활동별성장률(실질)	3.3	8.0	0.3	0.8	2.2
농림어업	-19.1	-29.1	9.8	-24.2	14.0
제조업	-0.9	2.6	0.7	0.9	-7.7
건설업	7.5	1.5	7.5	4.4	-6.9
서비스업	4.2	8.2	-0.4	0.7	3.4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5.9	7.2	1.6	0.9	3.5
금융보험업	9.7	19.1	0.0	-4.1	5.3
도소매업	5.0	9.3	-10.1	-1.4	2.4
전국 경제활동별성장률	4.0	7.7	3.3	5.0	3.9



<그림> 실질총생산 성장률

## ▶ 산업구조

- 2005년 서울특별시 산업구조(명목)는 서비스업이 8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비중은 2003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임
- 서비스업 중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24.8%→25.2%), 금융보험업(16.7%→17.1%) 등의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짐
- 서비스업 다음으로 건설업(7.2%), 제조업(5.8%) 순으로 비중을 차지함

〈표〉 연도별 생산구조 비중

	2001	2002	2003	2004	2005p
생 산 구 조 (명목)					
농 립 어 업	0.3	0.2	0.2	0.2	0.2
제 조 업	6.9	6.7	6.3	6.0	5.8
건 설 업	6.8	6.8	7.6	7.9	7.2
서 비 스 업	84.7	85.1	84.7	84.8	85.7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24.4	24.9	25.3	24.8	25.2
금 융 보 험 업	15.8	17.4	17.2	16.7	17.1
도 소 매 업	14.6	14.3	13.0	13.2	13.1

(단위: %)

## ▶ 서울특별시 1인당 총생산 및 지출

- 서울특별시 1인당 시내총생산은 14,542.5천원으로 전국 총생산 16,881.7천원을 상회함
- 서울특별시 1인당 시내총생산은 울산, 충남, 전남, 경북에 이어 5위를 기록함

〈표〉 서울과 전국의 1인당 총생산

(단위: 천원)

	2001	2002	2003	2004	2005p
서 울	14,868.2	16,761.8	17,526.3	17,898.1	18,542.5
전 국	13,112.1	14,406.1	15,290.3	16,354.6	16,881.7

- 서울특별시 1인당 민간소비지출은 10,505.0천원으로 전국 민간소비지출 8,855.1천원 보다 높게 나타나 전국 1위를 기록함
- 이는 주류 및 담배 등의 지출은 감소하였으나 임료 및 수도광열비, 오락문화비, 의료보건 등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여 1.7% 증가함
-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구축물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지난해 대비 6.4% 감소함
- 설비투자는 운수장비는 증가하였으나 기계류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여 2.4% 감소함

〈표〉 서울과 전국의 1인당 민간소비지출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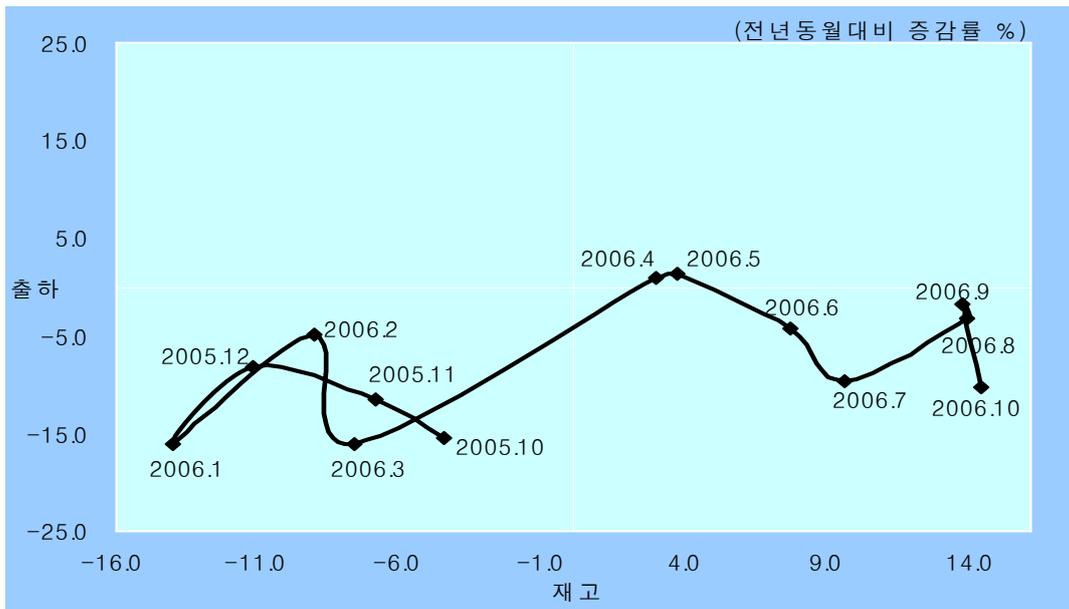
	2001	2002	2003	2004	2005p
서 울	8,673.5	9,615.8	9,899.8	10,104.4	10,505.0
전 국	7,365.1	8,089.8	8,233.0	8,403.6	8,855.1

## | 출하 · 재고 순환 |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누증의 양상

####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 증가세, 출하 감소세

- 2006년 10월중 서울 제조업 출하·재고를 중심으로 한 경기 순환 분석 결과 재고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출하는 감소세 양상을 보임
- 서울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는 지난해 10월 대비 10.2% 감소하여 지난 9월의 감소세가 큰 폭으로 확대된 반면, 재고는 지난해 10월 대비 14.3% 증가하여 지난 4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함
- 2006년 10월은 출하·재고 상황은 전체적으로 재고가 증가하고 출하가 감소하여 재고누증 단계(<Box> 참조)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 ▶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상승

- 2006년 10월중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91.2%를 기록하여 지난 7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79.2%로 지난 9월 보다 11.4%p 상승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178.8%, 경공업부문은 177.4%로, 중공업부문에서 재고율이 지난 9월 대비 대폭 상승하였으며 경공업부문에서도 지난 9월에 비해 소폭 상승함

<표>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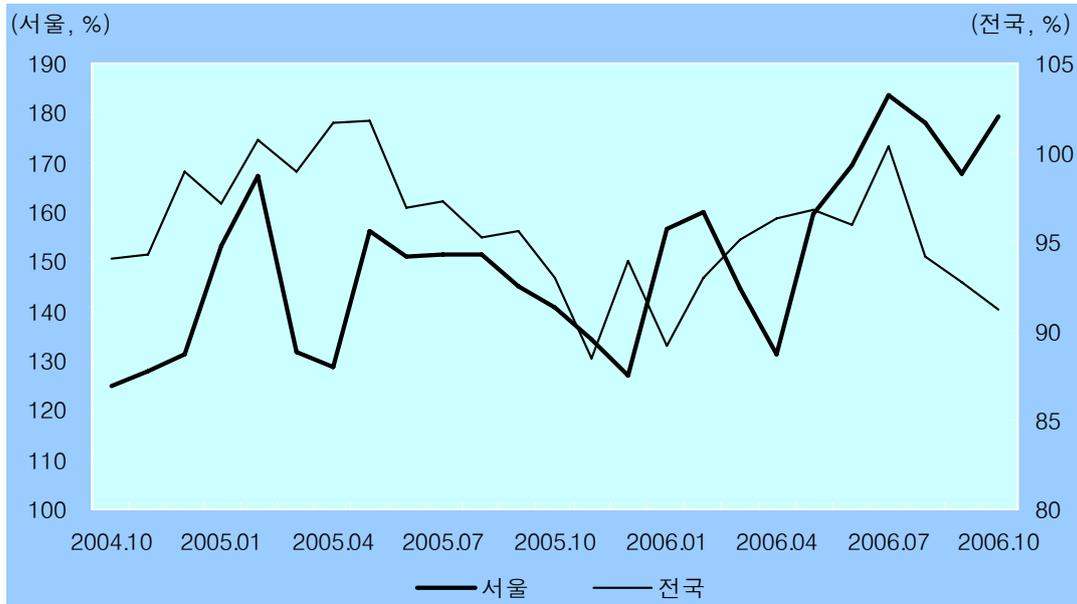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10월	6월	7월	8월	9월p	10월p
재고율	전국	93.0	95.9	100.4	94.2	92.7	91.2
	서울 (제조업)	140.8	169.6	183.7	178.1	167.8	179.2
	중공업	126.2	132.6	169.1	143.1	148.6	178.8
	경공업	144.7	182.8	186.1	189.1	171.9	177.4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 소 · 비 |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확대

##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

- 2006년 10월중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3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9.5% 감소하여, 지난 9월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됨
- 이는 백화점이 추석 연휴기간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한 의류부문의 매출감소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대형마트는 10월 초 추석 연휴기간의 매출 증가로 인한 큰 폭의 매출 증가를 시현한 것에 기인함

##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확대

- 2006년 10월중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백화점 판매액은 3.1% 증가하고 대형마트의 판매액은 7.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4.9% 증가함
- 백화점부문의 경우 추석기간 상이로 인한(2005년 9월 18일→2006년 10월 6일) 음식료품 판매증가와 정기세일 영향에 따른 수요증가로 지난해 10월 대비 3.1% 증가함
- 대형마트부문은 추석 기간의 상이로 인한 음식료품 및 주방용품 수요증가로 지난해 10월 대비 7.1%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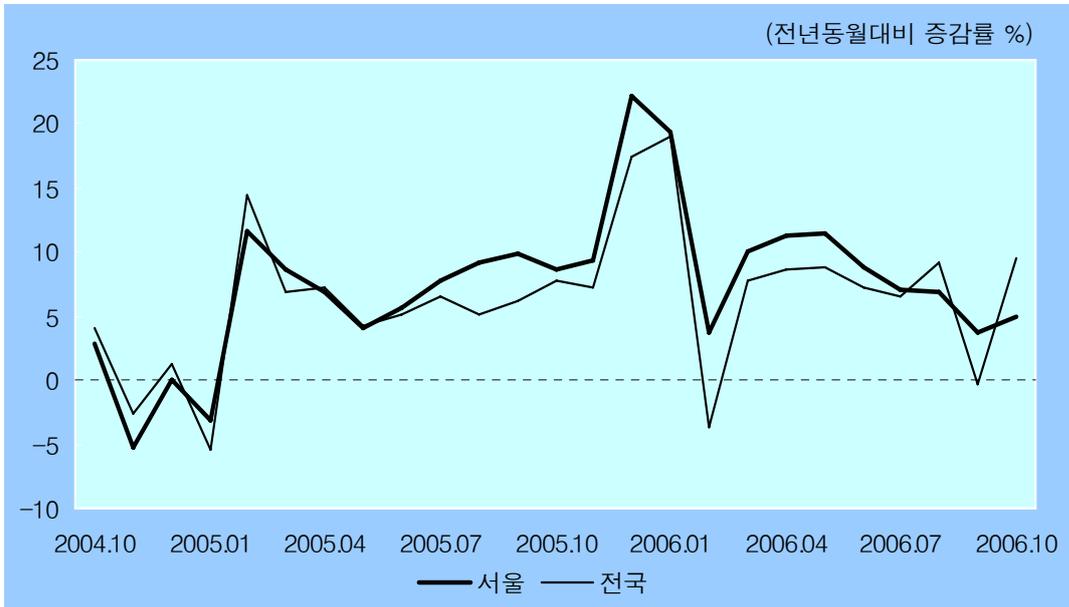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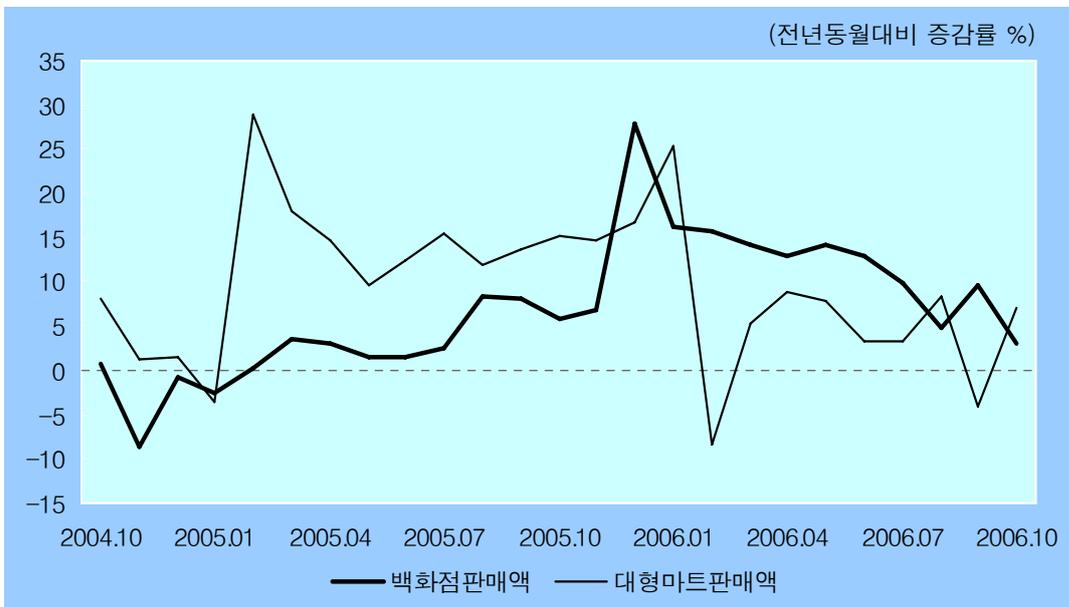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년					
	10월	6월	7월	8월	9월p	10월p	
판매액	전국	3,629 (7.8)	3,353 (7.3)	3,632 (6.6)	3,356 (9.1)	3,720 (-0.1)	3,973 (9.5)
	서울	1,257 (8.6)	1,125 (8.8)	1,198 (7.1)	1,069 (6.8)	1,261 (3.6)	1,319 (4.9)
	백화점	758 (5.7)	620 (13.0)	653 (9.8)	530 (4.7)	712 (9.7)	782 (3.1)
	대형마트 (할인점)	470 (15.3)	474 (3.3)	507 (3.4)	502 (8.3)	513 (-4.3)	504 (7.1)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sup>2</sup>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 취 · 업 · 자 |

## 서울의 취업자 수 지난해 11월 대비 소폭 감소

## ■ 전국의 취업자 수 지난해 11월 대비 소폭 증가

- 2006년 11월중 전국의 취업자는 23,458천명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1.1%(267천명)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의 57.9%(13,573천명)로 지난해 11월 대비 0.9% 증가하였고, 여자는 전체 취업자의 42.1%(9,885천명)로 1.5% 증가하여 여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함
-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대비 3.4% 감소한 반면에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는 6.3% 증가하여 지난해 동월대비 고령층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서울의 취업자 수 지난해 11월 대비 소폭 감소

- 2006년 11월중 서울의 취업자는 4,948천명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0.2%(-12천명) 감소함
- 전국의 취업자 수가 증가한 반면에 서울의 취업자수는 감소하여 서울의 고용사정이 전국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56.9%(2,811천명), 여자는 43.1%(2,138천명)로 지난해 11월 대비 남자는 1.6% 감소한 반면에 여자는 1.7% 증가함
- 여자의 경우 지난 8월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지난해 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의 경우와 상이함
- 전체 취업자의 20.9%(1,036천명)를 차지하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11월에 비해 6.4% 감소하여 지난해 동월대비 감소세가 지속됨
- 청년층 취업자의 경우 15-19세 20.7%의 높은 감소율을 보이며, 이어 20-24세 14.8%, 25-29세 0.9%의 감소율을 나타냄으로서 25세 미만의 청년층 취업자의 감소율이 두드러짐
- 전체 취업자의 15.0%(741천명)를 차지하는 고령층 취업자(55세 이상)는 7.4%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냄
-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특히 60세 이상에서 큰 폭(11.4%)의 증가율을 보이며, 이는 은퇴 후 재취업하는 고령층의 비율이 늘어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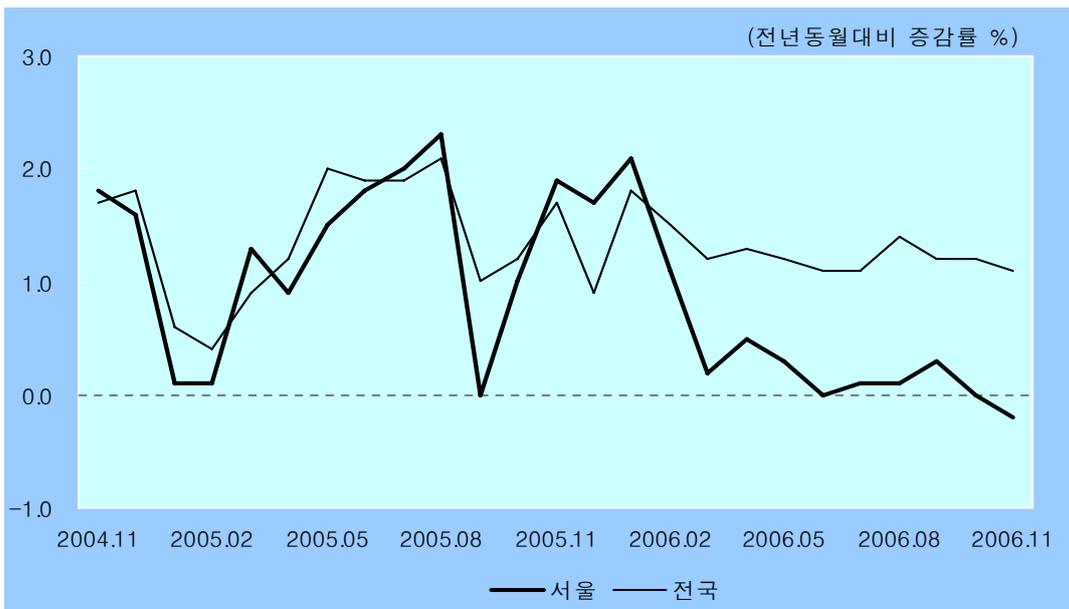
<표> 고용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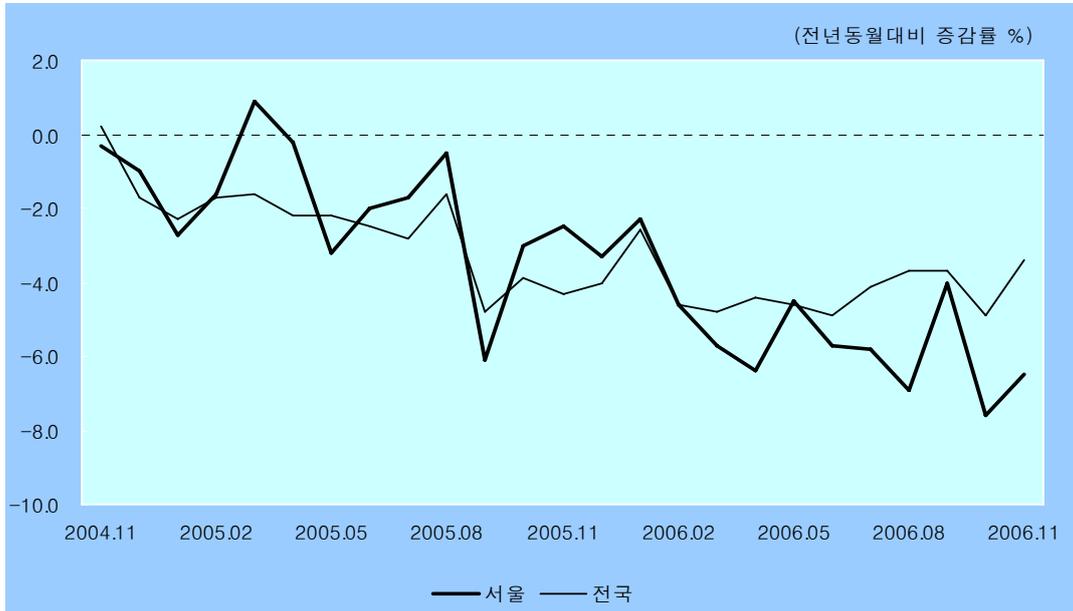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취업자	전국	1.7 (0.0)	1.1 (0.1)	1.1 (-0.2)	1.4 (-1.2)	1.2 (0.7)	1.2 (0.6)	1.1 (0.0)
	서울	1.9 (0.8)	0.0 (0.2)	0.1 (-0.5)	0.1 (-1.1)	0.3 (0.6)	0.0 (0.5)	-0.2 (0.6)
	남자	1.9 (1.4)	-0.4 (-0.5)	0.7 (0.4)	0.0 (-1.3)	0.4 (0.2)	-0.3 (0.0)	-1.6 (0.1)
	여자	1.9 (0.1)	0.6 (1.1)	-0.7 (-1.7)	0.3 (-0.7)	0.2 (1.1)	0.4 (1.3)	1.7 (1.3)
청년층 취업자	전국	-4.3 (-0.5)	-4.9 (-0.8)	-4.1 (3.3)	-3.7 (-3.4)	-3.7 (-1.4)	-4.9 (-0.6)	-3.4 (1.0)
	서울	-2.5 (0.2)	-5.7 (-1.0)	-5.8 (1.1)	-6.9 (-3.3)	-4.0 (0.7)	-7.6 (-2.3)	-6.5 (1.4)
고령층 취업자	전국	5.2 (-1.7)	3.9 (1.1)	3.8 (-2.3)	4.8 (-0.5)	4.1 (1.9)	6.1 (2.7)	6.3 (-1.5)
	서울	5.7 (1.0)	3.2 (1.4)	4.6 (-2.5)	4.9 (0.4)	2.3 (1.5)	8.2 (5.7)	7.4 (0.3)
	55-59세	3.0 (2.3)	1.3 (0.5)	2.0 (-1.9)	0.4 (-1.2)	2.7 (2.8)	3.4 (2.0)	2.6 (1.3)
	60세 이상	8.0 (0.0)	4.8 (2.1)	6.9 (-3.0)	8.9 (1.9)	1.7 (0.1)	11.9 (8.8)	11.4 (-0.5)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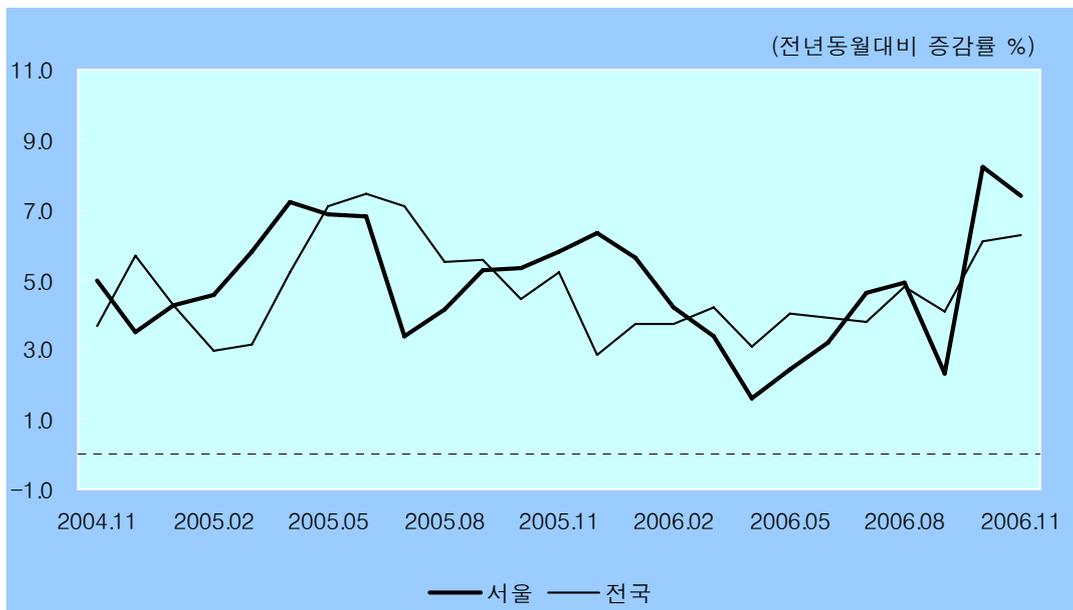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 감소

- 2006년 11월중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7.4%, 도소매·음식숙박업 28.5%, 제조업 14.8%,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0.7%, 건설업 8.4%의 분포를 나타냄
- 지난해 11월에 비해 제조업(0.9%p), 도소매·음식숙박업(0.3%p)의 비중이 감소함
- 지난해 11월 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5%), 건설업(1.5%), 전기·운수·통신·금융업(0.3%)은 증가한 반면에 제조업(-6.2%) 및 (-1.2%)은 감소함

#### ■ 전문·기술·행정관리자 취업자 수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

- 2006년 11월중 직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전문·기술·행정관리자 30.2%,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28.6%, 서비스·판매 종사자 25.0%, 사무종사자 16.0%의 분포를 나타냄
- 전체 취업자 중 각 직업별 취업자의 비중은 지난해 11월에 비해 전문·기술·행정관리자(0.9%p)를 제외하고 서비스·판매 종사자(-0.6%p),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0.3%p), 사무종사자(-0.1%p)의 비중은 감소함
- 지난해 11월 대비 전문·기술·행정관리자(2.8%)를 제외하고 서비스·판매 종사자(-2.5%),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1.0%), 사무종사자(-0.9%) 모두 감소함

#### ■ 지난해 11월 대비 임금근로자수 증가, 비임금근로자수 감소

- 2006년 11월중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73.0% (3,611천명), 비임금근로자는 27.0%(1,337천명)로 지난해 11월 대비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0.9%p 증가함
- 임금근로자는 지난해 11월 대비 1.0% 증가한 반면에 비임금근로자는 3.4% 감소하여 비임금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11월 대비 4.0% 증가하였고, 일용근로자(-2.4%)와 임시근로자(-1.3%)는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13.2%, 자영업자는 1.5% 감소함

〈표〉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산업별	· 제조업	-1.3 (-0.5)	-7.9 (-2.5)	-4.9 (2.4)	-3.5 (-2.6)	-4.1 (0.6)	0.0 (5.4)	-6.1 (-6.6)
	SOC 및 기타서비스업	2.4 (1.1)	1.4 (0.6)	1.1 (-0.9)	0.7 (-0.8)	1.1 (0.6)	0.0 (-0.3)	0.9 (2.0)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6.9 (1.8)	3.7 (1.4)	1.6 (-1.6)	3.5 (0.0)	2.3 (1.5)	1.5 (0.5)	2.5 (2.8)
	· 도소매·음식숙박	-0.9 (-0.1)	1.1 (1.7)	1.3 (-0.4)	-1.2 (-1.6)	-0.8 (-0.2)	-1.8 (-0.6)	-1.2 (0.6)
	· 전기·운수·통신·금융	1.7 (3.3)	-0.8 (-2.1)	1.5 (1.6)	1.9 (0.0)	1.0 (-2.8)	-0.4 (-1.0)	0.3 (4.0)
	· 건설업	-3.2 (-0.7)	-3.7 (-2.8)	-2.2 (-2.6)	-5.4 (-2.4)	3.1 (4.4)	0.1 (-2.0)	1.5 (0.6)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0.2 (0.2)	2.3 (-0.2)	1.8 (-0.5)	1.7 (-1.0)	2.9 (1.6)	1.4 (-0.6)	2.8 (1.6)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5 (0.7)	-3.4 (-4.0)	-0.7 (2.1)	-1.9 (-3.4)	-1.1 (1.4)	1.6 (3.0)	-1.0 (-1.9)
	서비스·판매종사자	2.8 (-0.2)	2.4 (8.2)	-1.4 (-4.5)	-0.2 (1.3)	-2.1 (-2.1)	-3.9 (-0.8)	-2.5 (1.3)
	사무종사자	5.3 (3.7)	-2.1 (-3.7)	1.0 (2.2)	1.0 (-0.9)	1.7 (1.9)	0.4 (0.1)	-0.9 (2.4)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2.9 (0.3)	-0.1 (-1.4)	1.6 (1.8)	1.3 (-2.6)	1.2 (0.7)	0.8 (0.8)	1.0 (0.5)
	비임금근로자	-0.4 (2.2)	0.2 (4.5)	-3.9 (-6.3)	-3.0 (3.2)	-2.0 (0.4)	-2.0 (-0.3)	-3.4 (0.7)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 실 · 업 · 률 |

## 서울의 실업률 지난해 11월과 동일

## ■ 전국의 실업률 소폭 하락

- 2006년 11월중 전국의 실업률은 3.2%(실업자 768천명)로 지난해 11월 대비 0.1%p 낮은 수준임
-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는 각각 3.6%(실업자 505천명), 2.6%(실업자 263천명)로 지난해 11월 대비 남자는 동일하며 여자는 0.1%p 낮음

## ■ 서울의 실업률 지난해 11월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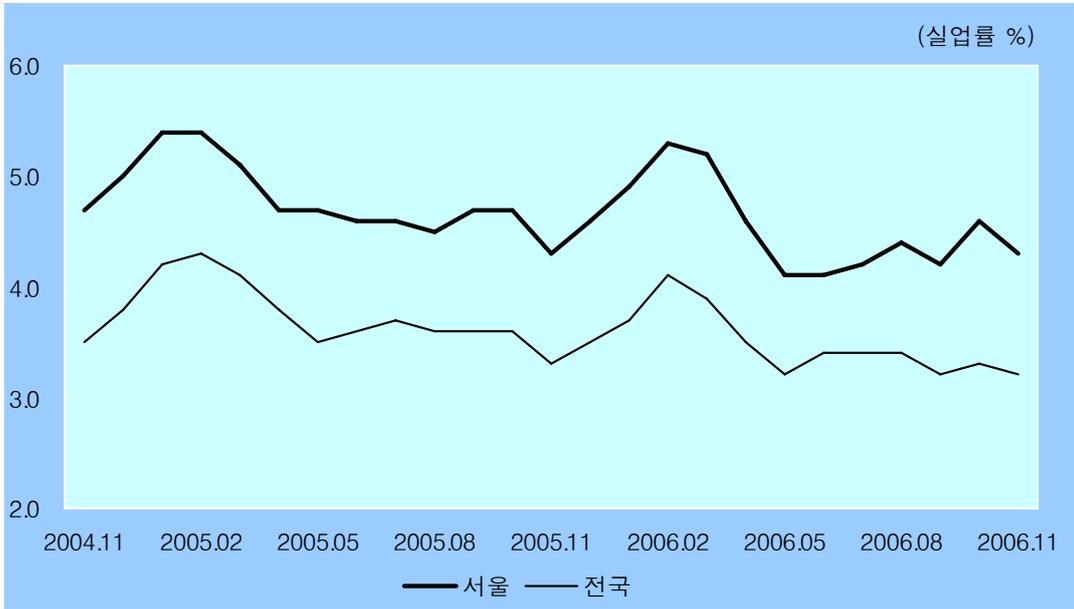
- 2006년 11월중 서울의 실업률은 4.3%(실업자 223천명)로 지난해 11월과 동일함
- 서울의 실업률은 전국의 실업률 보다 1.1%p 상회하고 있으며, 전국과 서울의 실업률 격차는 2개월 연속 1.0%p를 상회함
- 그러나 최근 5년간 11월 평균 실업률 4.4%보다 0.1%p 낮은 수준임
- 성별로 보면 남자의 실업률은 4.9%로 지난해 11월 대비 0.4%p를 상회하고 있으나, 여자의 실업률은 3.6%로 지난해 11월 대비 0.3%p 하회함
- 남자의 실업률과 여자의 실업률의 차는 7월 이후(7월:0.2%p, 8월:0.4%p, 9월:0.8%p, 10월:1.0%p 11월:1.3%p) 꾸준히 확대되어 옴

〈표〉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국	3.3	3.4	3.4	3.4	3.2	3.3	3.2	
서울	4.3	4.1	4.2	4.4	4.2	4.6	4.3	
성 별	남자	4.5	4.3	4.3	4.6	4.5	5.0	4.9
	여자	3.9	3.8	4.1	4.2	3.7	4.0	3.6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 물 · 가 |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지난 10월 대비 소폭 하락

##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소폭 하락세 지속

- 2006년 11월중 전국 소비자 물가는 지난 10월 대비 0.6% 하락하여 2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됨
- 비목별로 보면 집세(0.1%), 외식 등 개인서비스(0.1%)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채소, 과실류의 출회증가로 농축산물(-3.9%)가격은 하락하고, 공공서비스(-0.6%)와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0.2%) 가격은 하락함

##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소폭 하락세 지속

- 2006년 11월중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10월 대비 0.5% 하락하여 하락세가 지속됨
- 이는 지난 5년간 11월 평균 물가상승률(-0.3%)보다 0.2%p 하회하는 수준임
- 비목별로 보면 피복 및 신발(1.0%), 주거비(0.3%), 가구집기·가사용품(0.2%) 등은 상승하였으나, 지난 10월에 이어 광열·수도(-2.9%), 식료품(-1.6%), 교통·통신(-0.4%) 등은 하락함

## ■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상품부문 하락,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부문 하락

- 2006년 11월중 상품부문을 보면 농축수산물은 채소·과실류, 축산물과 수산물이 내림에 따라 지난 10월 대비 4.0% 하락하였으며, 공업제품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지난 10월 대비 0.1% 하락함
- 2006년 11월중 서비스 부문을 보면 전·월세를 포함한 집세는 지난 10월 대비 0.2%, 미용료 등 개인서비스는 0.2% 상승하였으나 도시가스가 크게 내린 공공서비스 부문은 지난 10월 대비 0.9% 하락함

## ■ 생활물가 및 신선식품지수 하락세 지속

- 2006년 11월중 생활물가는 0.9%(전국: 1.0%) 하락함
- 2006년 11월중 신선식품은 채소류(-11.2%)를 중심으로 6.1%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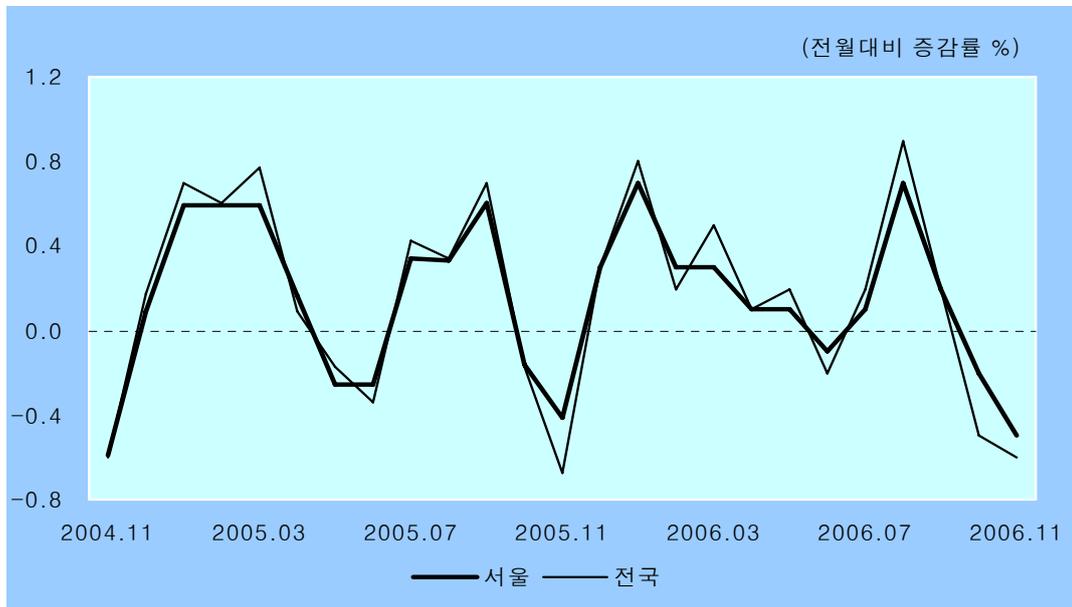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0=100.0,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비	전국	-0.7 (2.4)	-0.2 (2.6)	0.2 (2.3)	0.9 (2.9)	0.2 (2.4)	-0.5 (2.1)	-0.6 (2.2)	
	서울	-0.4 (2.2)	-0.1 (2.4)	0.1 (2.2)	0.7 (2.6)	0.2 (2.2)	-0.2 (2.2)	-0.5 (2.1)	
	상품 성질별	상품	-1.5 (2.8)	-0.2 (2.4)	-0.2 (1.6)	1.7 (2.7)	0.1 (1.2)	-0.7 (0.9)	-1.2 (1.3)
		서비스	0.3 (1.8)	0.1 (2.4)	0.3 (2.6)	0.1 (2.6)	0.2 (2.8)	0.2 (3.0)	-0.1 (2.7)
	생활물가	-0.8 (3.5)	-0.2 (3.5)	0.0 (2.8)	1.3 (3.6)	0.4 (3.0)	-0.7 (2.5)	-0.9 (2.3)	
	신선식품	-8.2 (0.6)	-5.1 (-2.3)	-1.4 (-3.9)	12.5 (4.1)	2.5 (0.9)	-1.3 (1.1)	-6.1 (3.3)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

## | 건 · 설 · 경 · 기 |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지난해 10월 대비 소폭감소

## ■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지난해 10월 대비 감소

- 2006년 10월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7,353천 $m^2$ 로 지난해 10월 대비 19.1% 감소함
- 이는 상업용 허가면적이 16.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허가면적의 36.1%를 차지하는 주거용 허가면적이 32.6%, 9.5%를 차지하는 문교·사회가 42.7% 감소한데 기인함

##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주거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감소세 지속

- 2006년 10월중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518천 $m^2$ 로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허가면적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월 대비 1.2%p 증가함
- 지난 8, 9월에 이어 지난해 동월 대비 10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2.3%)은 감소세를 지속함
- 전체 건축허가면적의 12.8%를 차지하는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을 보면 단독과 연립은 지난해 10월 건축허가면적과 동일하나 아파트(-74.4%)의 허가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함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을 보면 상업용(60.2%)을 제외한 공업용(-83.3%), 문교 및 사회(-55.6%) 및 기타부문(-86.7%)의 허가면적이 지난해 10월에 비해 감소함

## ■ 서울의 건설수주액 지난해 10월 대비 2배 이상 증가

- 2006년 10월중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12.736억 원으로 전국 건설수주액의 23.4%를 차지하며, 지난해 10월 대비 74.5% 증가함
- 지난 8, 9월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건설허가면적이 소폭(-2.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수주액은 증가함
-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부문에서 재개발 주택, 상가, 상하수도 부문의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큰 폭(550.3%)으로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 신규주택, 재건축 주택, 재개발 부문의 발주 증가를 중심으로 소폭(25.2%) 증가함
- 공종별로 보면 전체 건설수주액의 94.6%를 차지하는 건축 부문에서 75.9%, 5.4%를 차지하는 토목 부문에서 366.2%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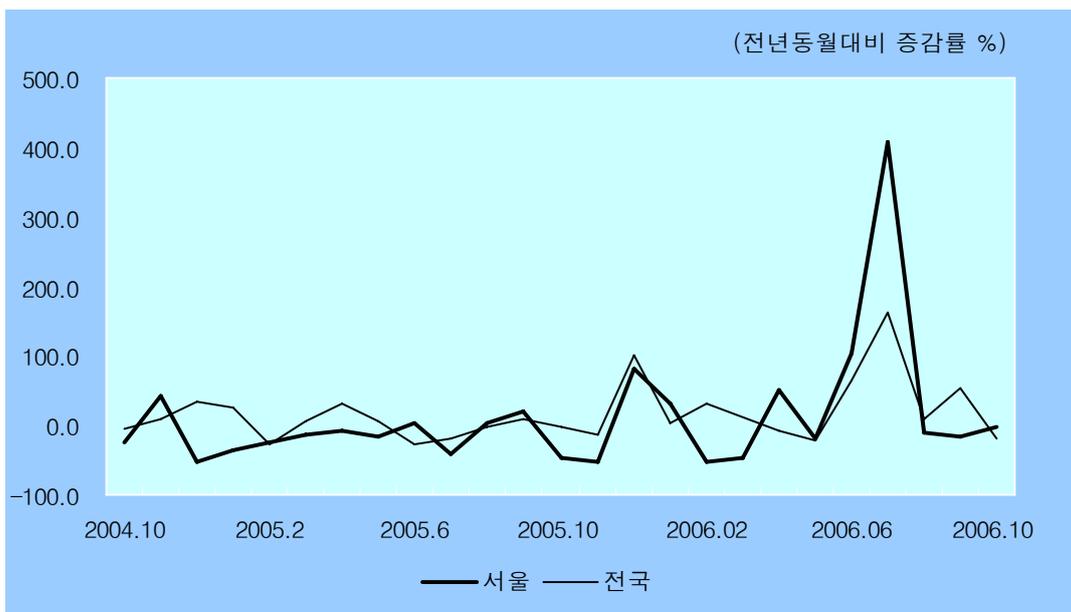
〈표〉 건축물 허가면적

(단위: 천㎡, %)

구 분	2005년	2006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0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국	9,090	14,132	21,080	8,502	11,109	7,353	-19.1	(-33.8)	
서울	530	2,094	3,078	692	775	518	-2.3	(-33.2)	
주거용	소계	98	493	596	113	219	66	-32.7	(-69.9)
	단독	9	17	23	10	14	9	0.0	(-35.7)
	연립	47	48	128	18	49	47	0.0	(-4.1)
	아파트	43	428	436	85	156	11	-74.4	(-92.9)
비주거용	소계	432	1,600	2,481	579	556	452	4.6	(-18.7)
	상업	236	1,164	1,662	430	284	378	60.2	(33.1)
	공업	30	17	71	34	143	5	-83.3	(-96.5)
	문교/사회	151	243	626	111	87	67	-55.6	(-23.0)
	기타	15	176	122	3	42	2	-86.7	(-95.2)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 포함, 기타는 공업용, 공공용 포함, (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소계가 다를 수 있음

자료: 건설교통부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추이

〈표〉 건설수주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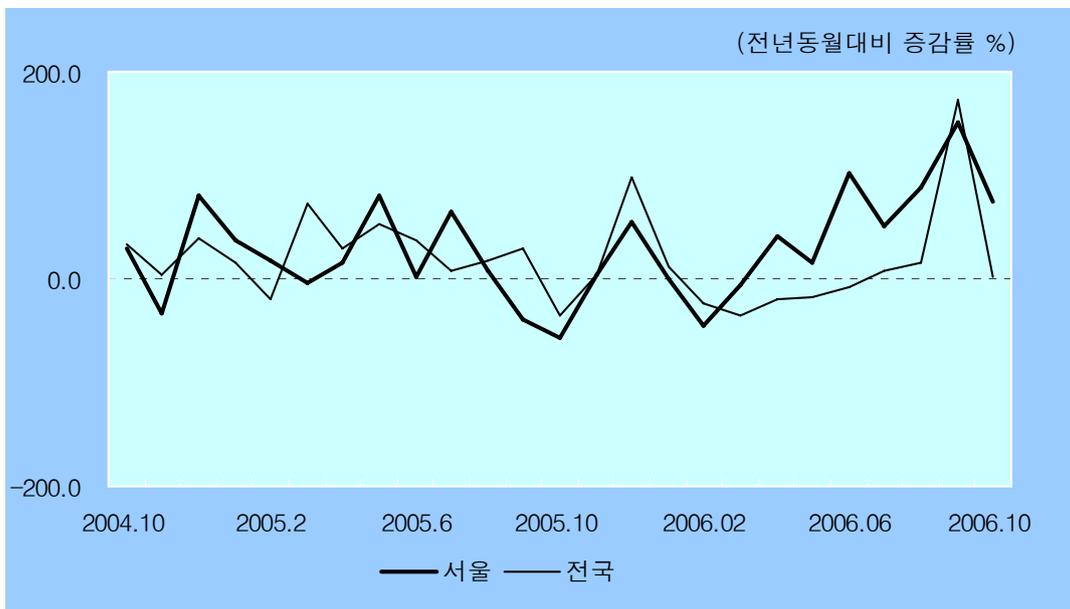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5년	2006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10월	6월	7월	8월	9월	10p월		
전국	5,358.0	9,262.6	7,291.3	5,910.2	10,223.2	5,438.8	1.5 (-46.8)	
서울	729.9	2,590.1	1,113.9	870.1	1,316.2	1,273.6	74.5 (-3.2)	
발주 자별	공공	74.1	400.9	304.4	72.4	596.8	482.2	550.3 (-19.2)
	민간	631.9	2,188.3	808.5	512.0	517.0	791.4	25.2 (53.1)
공종 별	건축	685.0	2,574.8	1,082.4	855.6	1,205.4	1,205.3	75.9 (0.0)
	토목	14.4	12.9	31.2	12.0	106.0	67.0	366.2 (036.8)

주: (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199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지난 10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

- 2006년 11월중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10월 대비 3.1% 상승하여 16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함
- 일반적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는 연중 가장 비수기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 급등의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지난 10월에 이어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낮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199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 2006년 11월중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10월 대비 4.8% 상승하여 1990년 2월 이후 1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전월대비 올해 평균 상승률이 1.0%이며, 지난 5년간 평균 11월 상승률이 -0.1%임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임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보다 1.7%p 높은 수준으로 7월 이후 확대되어 온 전국과의 격차(7월:0.1%p, 8월:0.2%p 9월:0.3%p 10월: 0.7%p)가 급격히 확대됨
- 지난 10월의 매매가격 상승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강북 뉴타운 지역과 강남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매매가격의 상승률을 나타냄
- 세부지역별로 강북은 4.1%, 강남은 5.4% 상승하여 2개월 연속 강남이 더 큰 폭(강남:3.1%p, 강북:2.6%p)으로 상승함
- 2005년 말 대비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은 15.4% 상승하여 전국(9.6%)의 1.6배 이상이며, 이 중 강남은 20.0%, 강북은 10.6% 상승함
-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6.2%, 연립주택 3.3%, 단독주택 2.7% 상승하여 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노원구, 은평구

- 강북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노원구(6.7%)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이어 3개월 연속 뉴타운 지역인 은평구에서(5.3%)에서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4.8%)을 상회하는 상승률을 나타냄
- 반면 종로구(1.5%), 중구(2.0%)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냄

### ■ 강남 주요 상승지역은 송파구, 강동구

- 강남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모든 지역이 3.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동남권인 송파구(7.7%), 강동구(7.6%)에서 7.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임
- 이어 동작구(6.0%), 구로구(5.7%), 서초구(5.2%), 강남구(5.1%)에서 서울 평균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4.8%)을 상회함

###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큰 폭으로 상승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0월 대비 6.2% 상승(남: 6.5%, 강북: 5.8%)하여 2002년 1월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구별로 보면 지난 10월에 이어 강동구(9.1%)가 9.0% 이상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마포구(8.0%), 송파구(7.9%), 노원구(7.3%), 관악구(7.2%), 강서구(6.6%), 금천구(6.6%), 구로구(6.4%)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함
- 가장 상승률이 낮은 지역인 중구(3.2%)이나 이 지역도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상승률(1.2%)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냄
- 11월중 서울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은 지난 10월 대비 6.1%(94만원)상승한 1647만원으로 지난 10월에 비해 상승폭이 2.9%p 확대됨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국	0.0	0.5	0.2	0.2	0.5	1.3	3.1 (9.6)	
서울	0.2	0.7	0.3	0.4	0.8	2.0	4.8 (15.4)	
아파트	0.2	0.6	0.3	0.3	0.6	2.2	6.2 (19.7)	
지역별	강북	0.1	0.6	0.4	0.5	0.7	1.5	4.1 (10.6)
주택매매	강남	0.3	0.8	0.3	0.2	0.9	2.3	5.4 (20.0)

주: , ( ) 2005 12 대비 증감률임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 이상인 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동구이며, 이중 강동구(7.5%), 송파구(7.0%)에서 서울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평균 증가율을 상회함
- 반면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의 1/2 이하인 구는 도봉구, 중랑구, 강북구이며, 이 중 도봉구(7.7%), 중랑구(6.9%)에서 서울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평균 증가율을 상회함

##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2006년 11월중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지난 10월 대비 1.0% 상승하여 상승세가 지속됨
-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 증가로 인한 전세물량 부족과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가격 동반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됨

####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2006년 11월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지난 10월 대비 1.6% 상승하여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국에 비해 0.6%p 상회함
- 이는 강북지역에서의 뉴타운 개발과 함께 강남의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매매가격의 상승에 따른 전세가격 동반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됨
- 강남, 강북 모두 지난 10월 대비 1.6% 상승하였으며 강남의 상승폭이 확대됨
-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1.7%, 단독주택 1.5%, 연립주택 1.4% 상승하여 주택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아파트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주요 상승지역은 영등포구, 은평구, 강동구, 중랑구

- 영등포구(2.6%), 은평구(2.6%), 강동구(2.4%), 중랑구(2.4%)는 2.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며, 이어 금천구(1.8%), 성북구(1.8%), 용산구(1.8%), 광진구(1.7%)는 서울 평균 주택전세가격 상승률(1.6%)을 상회함
- 대부분 강북 지역에서 전세가격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지난 10월에 비해 강남지역에서도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두드러짐
- 반면 강북구(0.4%), 관악구(0.5%), 마포구(0.5%), 종로구(0.7%), 중구(0.9%)에서는 1.0%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나타냄

### ■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2006년 11월중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10월 대비 1.7% 상승하였으며, 지난 9월 이후 1.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냄
- 강북은 1.7%, 강남은 1.6% 상승하여 강북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0.1%p 높음
- 11월중 서울의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지난 10월 대비 1.3% 상승한 591만원으로 지난 10월에 비해 상승폭이 0.1%p 확대됨
- 구별로는 서초구(2.7%), 종로구(2.7%), 중랑구(2.7%), 영등포구(2.2%), 중구(2.1%), 노원구(2.0%)가 2.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금천구(1.9%), 은평구(1.9%), 동대문구(1.8%)가 서울평균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1.7%)을 상회함
- 반면 관악구(0.7%), 광진구(0.8%), 동작구(0.8%), 서대문구(0.9%)에서는 1.0%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보임

###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지난 10월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

- 2006년 11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5.4%로 45% 대로 하락함
- 이는 전국 평균 55.5%를 10.1%p 하회하고 있으며 전국과의 격차가 지난 10월(9.1%p)에 비해 확대됨
-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은 53.7%, 강남은 38.5% 로 강남이 강북에 비해 15.2%p 낮음
- 강남지역은 30% 대까지 하락하였으며, 이는 매매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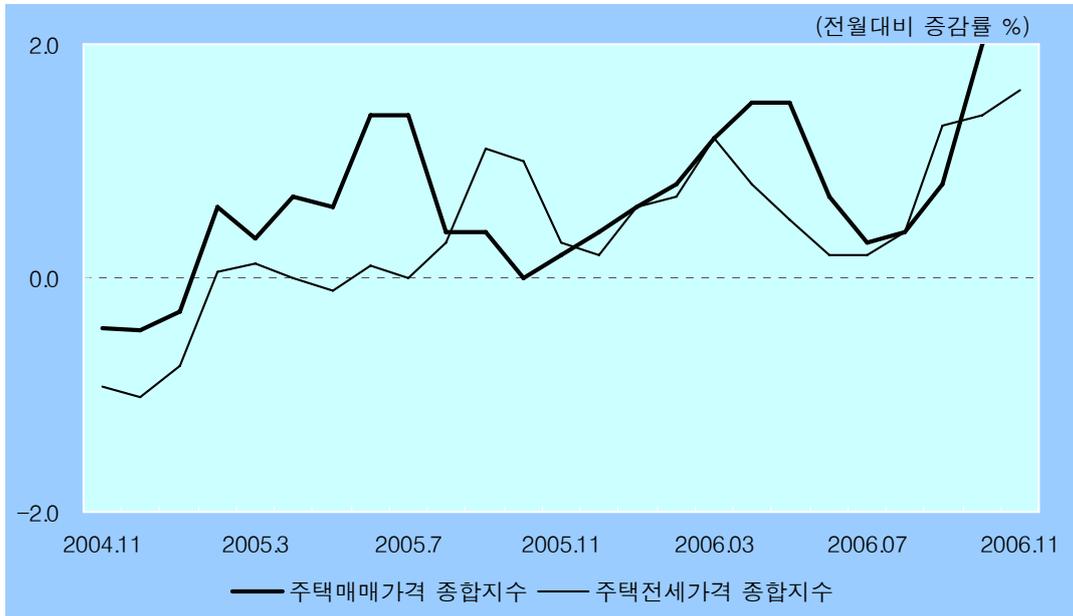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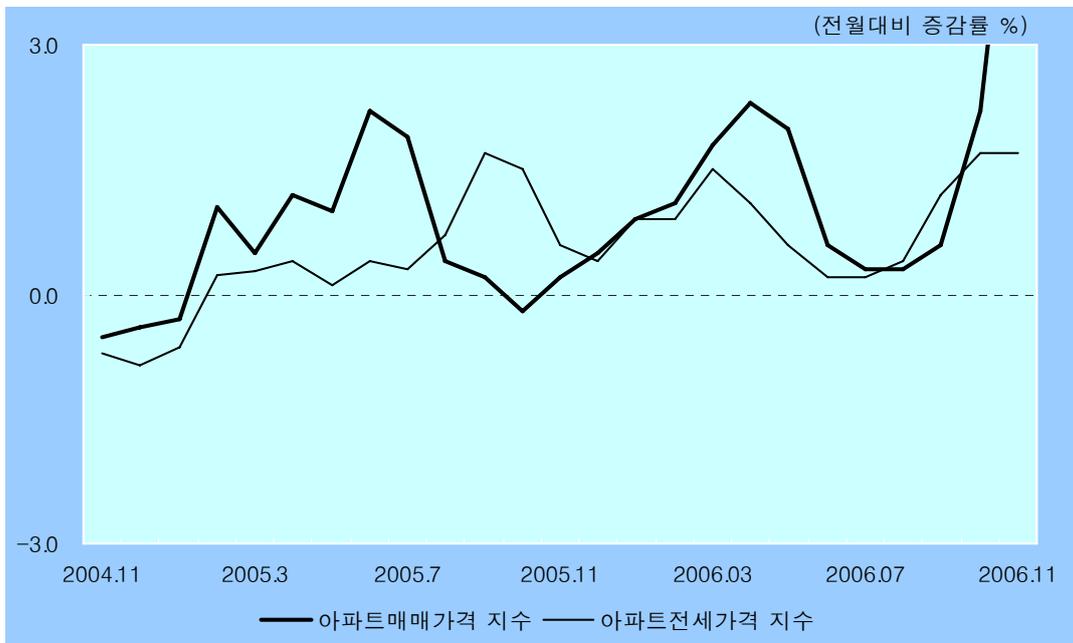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국	0.2	0.1	0.1	0.2	0.8	1.0	1.0 (5.9)
서울	0.3	0.2	0.2	0.4	1.3	1.4	1.6 (9.1)
아파트	0.6	0.2	0.2	0.4	1.2	1.7	1.7 (10.9)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0.0	0.2	0.2	0.6	1.3	1.6	1.6 (8.8)
강남	0.5	0.2	0.2	0.2	1.2	1.3	1.6 (9.5)

주: , ( ) 2005 12 ! 대비 증감률임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원/달러 환율 큰 폭으로 하락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상승세 지속
  -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11.9일)을 전후로 일시 급등락한 후 상승세 지속(10월말 4.71%→11.8일 4.78%→10일 4.68%→11월말 4.82%로 마감)
  - 월초 금리인상 기대감과 채권물량 감소 예상 등으로 상승세를 보인 후 콜금리 동결 결정으로 하락 안정세를 보였으나 기준율 인상 결정과 경기지표 호조,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재상승함
- CD 유통수익률 큰 폭으로 상승
  - 2006년 11월중 CD(91일) 유통수익률은 월초반 완만하게 오르다가 기준율 인상 발표(11.23일) 이후 CD 발행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됨(10월말 4.58%→11.23일 4.61%→11월말 4.67%로 마감)
  - 2006년 11월말 현재 콜금리(1일)는 지난 8월 콜금리가 4.50%로 0.25%p 인상된 후 현재 까지 동결됨에 따라 11월말 현재 4.49%를 나타냄
- 장·단기 금리차 큰 폭으로 확대
  - 장·단기 금리차는 국고채가 지난 9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콜금리가 유지됨에 따라 11월말 현재 0.33%p로 크게 확대됨
  - 국고채 금리가 기준율 인상 결정으로 상승한 가운데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어 경기회복이 기대됨
- KOSPI 지수 6월 중순 이후 상승세 지속
  - 2006년 11월중 KOSPI 지수는 환율하락으로 인한 기업이익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 증시 상승, 북핵리스크 감소, IT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지속 상승하여 11.30일 지난 10월 대비 67.7p(4.96%) 상승한 1,432.21p로 마감함
  - 2006년 11월중 KOSDAQ 지수도 11월 들어 해외증시 상승 등으로 동반 상승하여 지난 10월 대비 36.1p(6.2%) 상승한 622.17p로 마감함

■ 원/달러 환율 큰 폭으로 하락

- 2006년 11월중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해외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 다변화 발언으로 929.5원으로 하락함
- 월 초반에는 미국 무역적자 축소(11.10일)와 중국 외환보유고 다변화 발언으로 935원대 전후에서 보합권을 유지하다 월 후반 추수감사절(11.24일) 이후 미국 경기둔화 우려 등 달러약세 요인과 일본 및 유로존 금리인상 전망이 부각되면서 929원대에서 마감함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6년							전월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6일		
금 리	콜금리(1일)	4.22	4.49	4.48	4.48	4.49	4.51	0.22
	국고채(3년)	4.83	4.76	4.57	4.71	4.82	4.94	2.34
	CD(91일물)	4.64	4.68	4.59	4.58	4.67	4.82	1.97
	장·단기 금리차 <sup>1)</sup>	0.61	0.27	0.09	0.23	0.33	4.43	43.48
주 가	KOSPI <sup>2)</sup>	1,297.82	1,352.74	1,371.41	1,364.55	1,432.21	1,433.92	4.96
	KOSDAQ <sup>2)</sup>	557.66	572.83	600.42	586.1	622.17	601.6	6.15
환율 (W/US\$) <sup>2)</sup>	955.2	961.5	946.2	942.3	929.5	928.1	-1.36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 - 콜금리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11월중 은행의 가계대출 최대 증가폭 기록

- 2006년 11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5.6조원 늘어나 2002년 10월(6.1조원)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함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량 증가, 대출 선수요 등으로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어 4.2조원으로 증가함으로써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10월 1.2조원에서 11월 1.5조원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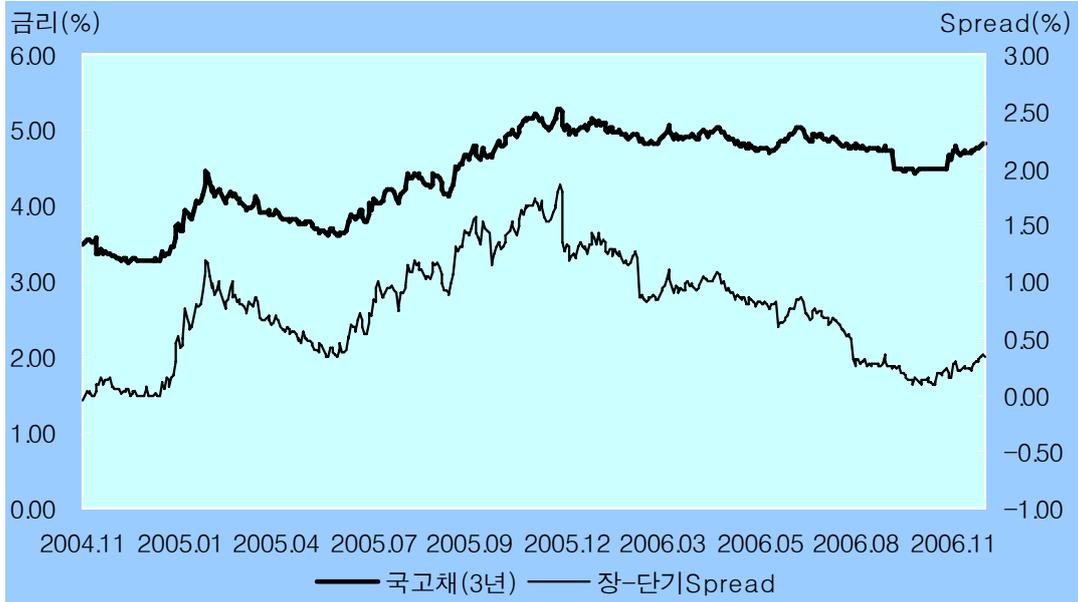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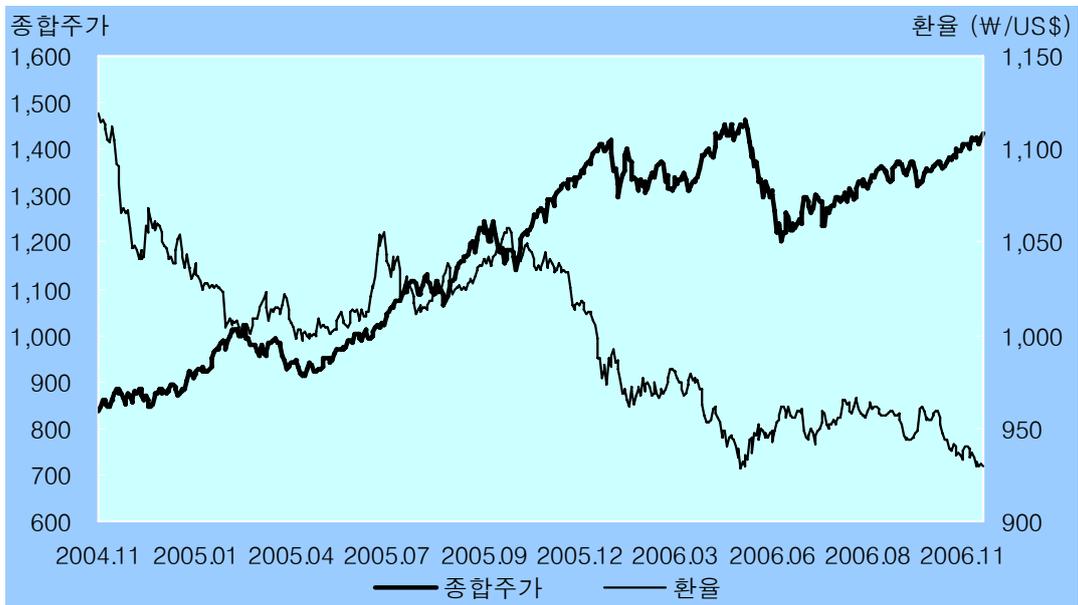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년				월말잔액		전월비
						2006년		
	11월	9월	10월	11월	10월	11월		
가계대출 <sup>1)</sup>	2.3	3.4	4.0	5.6	335.0	340.7	1.70	
주택담보대출 <sup>2)</sup>	1.3	2.6	2.8	4.2	209.7	213.9	2.00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0.9	0.9	1.2	1.5	123.7	125.2	1.21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 창 · 업 · 동 · 향 |

## 서울 신설법인 수 큰 폭으로 증가

## ■ 전국 신설법인 수 증가

- 2006년 11월중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지난 10월 대비 27.3%(942개) 증가한 4,393개임
- 업종별로 지난 11월에 비해서 제조업(18.5%), 건설 및 설비업(32.4%), 서비스업(29.6%) 등 전 업종이 증가함

## ■ 서울 신설법인 수 증가

- 2006년 11월중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지난 10월 대비 28.5%(383개) 증가한 1,729개이고, 전국대비 지역별 비중은 39.4%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냄
- 업종별로 지난 10월 대비 제조업은 5.8% 감소한 반면, 제조업을 제외한 건설 및 설비업(57.1%), 서비스업(28.9%) 등은 증가함

## ■ 서울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증가

- 2006년 11월중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는 1,473개로 지난 10월 대비 28.9% 증가함
- 부문별로 보면 지난 10월에 비하여 기타서비스업(-33.3%), 숙박 및 음식점업(-18.8%), 운수업(-3.0%)을 제외한 부동산 및 임대업(54.3%), 사업서비스업(40.3%), 교육서비스업(40.0%) 등 대부분이 증가함
- 서울의 전체 신설법인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지난 10월(84.9%) 보다 증가한 85.2%로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5년	2006년				전월비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증감		증감률	
전국	4,199	3,904	4,197	3,451	4,393	942	(194)	27.3	(4.6)
서울	1,699	1,510	1,653	1,346	1,729	383	(30)	28.5	(1.8)
서비스업	1,407	1,253	1,424	1,143	1,473	330	(66)	28.9	(4.7)
제조업	132	132	94	103	97	-6	(-35)	-5.8	(-26.5)
건설 및 설비업	159	124	131	98	154	56	(-5)	57.1	(-3.1)

주: (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중소기업청

# | 어 · 음 · 부 · 도 · 율 |

## 서울 어음부도율 하락

### ■ 전국 어음부도율 0.03%로 지난 10월 대비 하락

- 2006년 11월중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지난 10월 보다 0.01%p 하락함
- 이는 서울지역 부도금액의 감소(10월중 3,379억원→11월중 2,707억원) 등에 기인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234개로 지난 10월 보다 53개 증가하여 2006년 1월~10월중 평균 213개를 상회함
- 업종별로 지난 10월 대비 제조업(57개→87개)과 건설업(37개→52개), 서비스업(82개→88개) 등 대부분이 증가함

### ■ 서울 어음부도율 0.02%로 지난 10월 대비 하락

- 2006년 11월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지난 10월 보다 0.01%p 하락함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지난 10월 보다 2개 증가한 74개이고, 2006년 상반기 평균(76개)과 비슷한 수준임
- 2006년 9월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2개, 지방은 51개(109개→160개) 각각 증가하였고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국 부도업체 수의 31.6%를 차지함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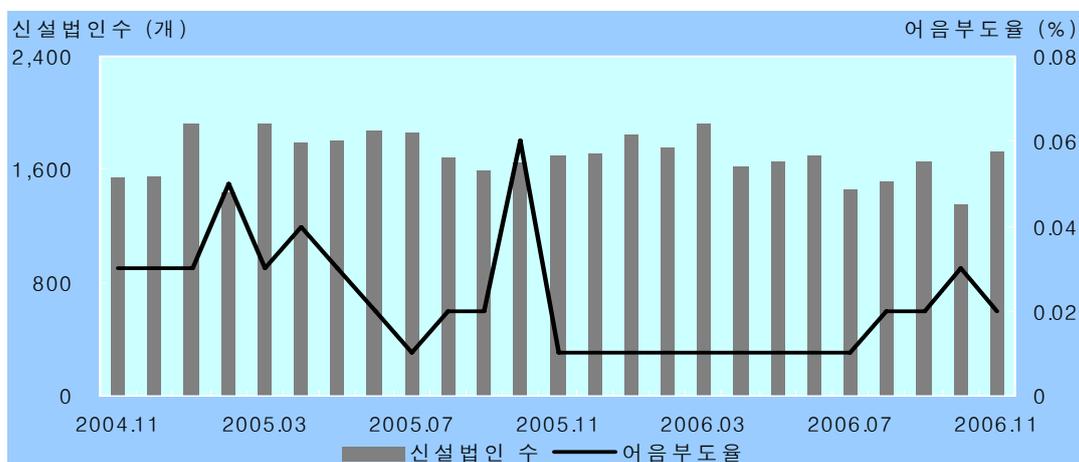
(단위: 개소, %, %p)

구 분	2005년	2006년					전월비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3	0.02	0.03	0.04	0.03	-0.01	(0)	-25.0	(0)
	부도업체 수	313	227	228	181	234	53	(-79)	29.3	(-25.2)
서울	어음부도율	0.01	0.02	0.02	0.03	0.02	-0.01	(0.01)	-33.3	(100.0)
	부도업체 수	105	85	76	72	74	2	(-31)	2.8	(-29.5)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평균보증금액 상승세 지속

## ■ 전월대비 보증공급액의 대폭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11월중 1,115건, 39,923백만원으로 지난 10월 대비 건수 27.4%, 금액 44.8% 증가함
- 전월대비 영입일수 증가, 지속적인 보증수요 증가 등에 따라 보증건수 및 금액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건당 평균보증금액은 3개월 연속 30백만원을 초과하여 상승세를 지속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5.11	2006.07	2006.08	2006.09	2006.10	2006.11	전년동월비			
							증감	증감률		
건수	3,759	662	1,038	1,171	875	1,115	-264	(240)	-70.3	(27.4)
금액	47,033	17,184	30,848	39,789	27,577	39,923	-7,110	(12,346)	-15.1	(44.8)
건당평균금액	12.5	26.0	29.7	34.0	31.5	35.8	23.3	(4.3)	186.4	(13.7)

주: ( ) 괄호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 제조업 및 기타업종(운수업)의 비중 증가세

- 2006년 11월의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지난 10월과 비교하여 제조업의 비중(금액기준)이 4.3%p 증가하였으며, 기타업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별보증(운수업) 등의 영향으로 지난 8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126	434	227	257	71	1,115
비율	11.3	38.8	20.4	23.1	6.4	100
금액	8,460	13,399	5,335	6,622	6,107	39,923
비율	21.2	33.5	13.4	16.6	15.3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의 비중 증가세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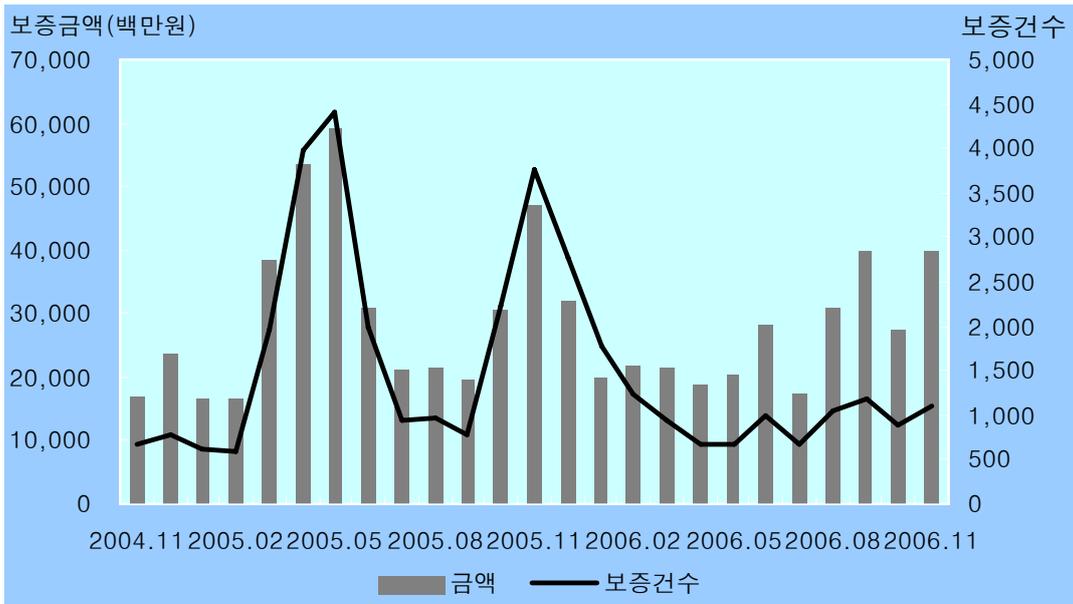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다시 소폭 하락하여 70.3%를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 소기업 및 중기기업의 비중은 각각 2.1%p, 1.4%p 소폭 상승함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6.09	2006.10	2006.11	전월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1,047	787	1,000	213
	비율	89.4	89.9	89.7	-0.2
	금액	26,958	20,358	28,083	7,725
	비율	67.7	73.8	70.3	-3.5
소기업	건수	91	67	84	17
	비율	7.8	7.7	7.5	-0.2
	금액	8,897	5,884	9,323	3,439
	비율	22.4	21.3	23.4	2.1
중기업	건수	33	21	31	10
	비율	2.8	2.4	2.8	0.4
	금액	3,934	1,335	2,517	1,182
	비율	9.9	4.9	6.3	1.4
합계	건수	1,171	875	1,115	240
	비율	100	100	100	0
	금액	39,789	27,577	39,923	12,346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 지난해 11월 대비 수출 15.0%, 수입 13.5% 증가

## ■ 전국 수출 월간 실적 사상 최초 300억불 돌파

- 2006년 11월중 전국의 수출은 지난해 11월 대비 19.6% 증가한 30,661백만 불로, 월간 수출실적이 사상 최초로 300억불을 돌파하여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증가가 지속됨
- 반도체·선박 등 주력품목의 고른 수출 호조 지속, 중국·일본·EU 등 주요 지역에서의 두 자릿수 수출증가와 당초 12월로 예정되었던 대형해양구조물(7.3억불 상당) 조기인도된 것이 높은 수출증가의 배경임

## ■ 전국 수입 급증세 둔화

- 2006년 11월중 전국의 수입은 지난해 11월에 비하여 12.2% 증가한 26,763백만 불로, 그동안 급증세가 10월 이후 점차 둔화되는 양상임
- 이는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에 따른 원유·석유제품·LNG 등 주요 에너지 수입 감소로 원자재 수입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기인함

## ■ 서울 수출 지난해 11월 대비 15.0% 증가

- 2006년 11월중 서울의 수출은 지난해 11월 대비 15.0% 증가한 2,210백만 불을 기록함
- 품목별로는 전자전기제품(15.7%), 철강금속제품(52.2%), 화학공업제품(46.6%), 기계류(30.0%)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섬유류(-2.7%) 등이 감소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중국(20.6%), 미국(4.2%), 이란(145.9%) 등이 증가하고 일본(-14.1%) 등이 감소함

## ■ 서울 수입 지난해 11월 대비 13.5% 증가

- 2006년 11월중 서울의 수입은 지난해 11월 대비 13.5% 증가한 5,268백만 불을 기록함
- 품목별로는 전자전기제품(7.3%), 기계류(9.3%), 철강금속제품(55.5%) 등이 증가하고 광산물(-24.1%) 감소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중국(13.5%), 미국(34.2%), 일본(2.6%), 캐나다(82.6%) 등이 증가세를 나타냄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5년		2006년				전년동월비			
		11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25,632	25,780	27,293	29,657	28,054	30,661	5,029	(2,607)	19.6	(9.3)
	수입	23,850	25,536	27,037	27,709	25,639	26,763	2,913	(1,124)	12.2	(4.4)
서울	수출	1,922	2,126	2,0500	2,282	1,919	2,210	288	(291)	15.0	(15.2)
	수입	4,639	4,790	5,219	5,377	4,978	5,268	629	(290)	13.5	(5.8)

주: (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무역협회